

Metaphor 小考 — 그 本質과 機能

姜 大 虔

I

문학 이론가이며 수사학자였던 Aristotle 이래로 은유는 문학 이론가들과 수사학자들의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특히 근년에 이르러서는 철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 예술이론가와 또한 언어학자들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것은 은유가 비단 문학이나 수사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널리 인간의 사고와 심리, 예술적 문화적 활동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I. A. Richards의 말대로 “omnipresent principle of language”¹⁾로서의 은유의 특성이 언어학자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기 때문이다. the “leg” of the chair, the “foot” of the mountain, the “neck” of the battle 등의 일상적 표현 속에서도 “언어의 편제적 원리”로서의 은유의 편린을 힐끗 볼 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처럼 말의 의미를 확대하여 사용한 예들은 일상어로서 편입되어 본래의 은유로서의 색채를 잃게 된 것이다. 은유가 여러 학문분야의 학자들의 공동적 관심사가 될만큼 다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다각적인 측면에 관한 가벼운 언급만이라도 극히 힘이 드는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포괄적이 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오직 우리의 언어생활과 문학적인 표현과 관련되는 은유의 몇가지 기본적인 사실——그 본질과 기능——을 고찰하려고 한다.

은유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metaphora는 “옮겨놓다”(carry over; transfer)라는 뜻을 가진 *metapherein*이란 동사(*meta*, over + *pherein*, to carry)에서 유래하는 명사이다. 은유의 이러한 어원은 은유에 관한 Aristotle의 정의를 다분히 뒷받침하여 준다. 그는 이렇게 은유를 정의하고 있다.

1) *The Philosophy of Rhetoric* (London: Oxford Univ. Press, 1936), p. 92.

Metaphor consists in giving the thing a name that belongs to something else; the transference being either from genus to species, or from species to species, or on grounds of analogy²⁾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은유가 그 어원이 밝혀주는 바와 같이 어떤 사물의 이름을 그 사물("something else")로부터 다른 사물("the thing")로 옮겨붙이는 일——이름의 옮겨놓음, 名稱의 轉移——과 관련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의 사실은 이러한 이름의 옮겨놓음을 가능케 하는 근거(ground)³⁾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Aristotle의 "thing"이나 "name"은 아주 넓은 의미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thing"은 단순히 외계에 존재하는 사물만이 아니고 사고의 대상을 지칭하고 "name"은 고유명사나 보통명사와 같은 제한된 의미로서 생각하기 보다는 어떤 기호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은유란 어떤 사고의 대상을, 어떤 다른 사고의 대상을 표시하는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사고의 대상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호의 측면에서 restate 한다면 은유란 어떤 기호를 그 통상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너무 막연하게 보이는, 불완전 규정이기도 하지만 은유를 설명하는 기초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가령 Milton이 반역한 처사들의 하나인 Belial을

through his tongue

Dropt Manna, and could make the worse appear
The better reason...⁴⁾

이라고 묘사했을 때 정말 Belial이 천상의 음식인 만나를 빚어냈다고 독자들이 생각하도록 그것이 의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tongue," "dropt," "manna" 등은 Belial의 변설이 좋다는 것을 암시하도록 각각 통상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통상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라는 표현은 "통상적 의미, 그리고 또한 다른 의미"라고 바꾸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은 은유로서 사용되지 않은 다른 문맥들에서도 가질 수 있는 통상적 의미와 또한 은유로서 사용된 이 문맥에 특유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의 이중적 용법——이것은 은유에 관한 Aristotle의 정의에 있어서의 핵심

2) *Poetics*, trans. Bywater, Chap. 21, 1457b.

3) I.A. Richards는 "the ground of the metaphor," "the ground of the shif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The Philosophy of Rhetoric*, p. 117 참조.

4) *Paradise Lost* II. 112.

적인 사실이다.

은유로서 사용된 말이 지니는 두가지 의미는 소위 字義의 의미(literal sense)와 비유적 의미(figurative sense)인 바⁵⁾ 이 두가지 의미는 은유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은유의 기본적 특질의 하나는 실로 이러한 의미의 이중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령 위의 예에서 “manna”는 애굽을 떠나 사막에서 방랑했던 이스라엘민족에게 기적적으로 여호와가 내린 하늘의 음식이라는 그 자의적 의미와 “듣기 좋은 말”이라는 그 비유적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의미는 I.A. Richards가 제시한 은유의 두가지 구성요인 “vehicle”과 “tenor”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의 “vehicle”과 “tenor”는 각각 은유적 표현과 그 지시대상을 언급하며 의미적 차원에서 은유의 요소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가령 Richards는 “The Oxford Movement may be a spent wave”에서 vehicle은 “spent wave”라는 표현이고 tenor는 “spent wave”라는 표현이 언급하는 대상인 “the Oxford Movement”라고 말하고 있다.⁶⁾ 그러나 우리의 字義의 의미는 “spent wave”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문맥에서 지니는 “쇠진한 파도”라는 의미이며 우리의 비유적 의미는 이 문맥에서만 지니는 “이미 영향력을 잃은”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말의 비유적 의미는 다른 말의 자의적 의미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근사할 수 있다. 은유가 지니는 비유적 의미를 그와 동일하거나 근사한 자의적 의미를 가진 말로 옮긴다면 그것은 그 은유의 “풀이”(paraphrase)가 된다. 은유의 완전한 풀이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수많은 비평가들의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은유의 본질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후설하기로 한다. 어떤 말이 그 자의적 의미 및 그 비유적 의미와 가지는 관계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어떤 말은 그 자의적 의미의 직접적 기호(immediate sign)이고 그 비유적 의미에 대해서는 간접적 기호(mediate sign)가 되고 있다 라고 따라서 우리는 은유의 자의적 의미를 통하여——그것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그 비유적 의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Aristotle이 “이름의 옮겨놓음”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5) 은유의 작용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된 문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Donald Davidson은 은유에서의 비유적 의미의 존재를 부정한다; *Critical Inquiry*, 5 (Autumn 1978), 31-47. 참조.

6) Cf. *Interpretation in Teaching* (N.Y.: Harcourt, 1938), p. 121.

말했거니와 이것은 “의미의 옮겨놓음”——자의적 의미로부터 비유적 의미로의 “의미의 轉移”——을 가능케 하는 근거라고 restate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轉移를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고 있다. 屬(genus)에 의한 種(species)의 대치, 種에 의한 屬의 대치, 어떤 種의 다른 種에 의한 대치 및 類比(analogy)가 그것이다. Aristotle 이후로 이러한 것들은 총칭적으로 “trope”(비유)⁷⁾로 불리어지고 類比가 의미의 전이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만 “metaphor”(은유)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은유”를 Aristotle적인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은유”와 다른 “비유”와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種을 屬으로, 혹은 屬을 種으로 대치하거나 부분을 전체로, 혹은 전체를 부분으로 대치함으로써 자의적 의미로부터 비유적 의미로의 전이를 가능케 하는 비유는 전통적으로 提喻(Synecdoche)라고 불린다. 위에서 인용한 Milton의 시행에서 하나의 조음기관인 “tongue”을 조음기관 전체를 대치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 그 예이다. 어떤 種을 다른 種——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種——으로 대치함으로써 의미의 전이를 가능케 하는 비유는 轉喻(metonymy)라고 한다. Shakespeare의 작품을 읽는 것을 Shakespeare를 읽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 예이다. 反喻(irony)의 경우에는 의미의 전이가 부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誇張(overstatement)은 일종의 轉喻로 볼수도 있으나 별개의 비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Aristotle의 정의는 은유의 정의라기 보다도 그것을 포함한 비유의 정의로 보아야 한다. 어떠한 비유에 있어서나 적어도 하나의 낱말은 그 자의적 의미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mediately) 그 비유적 의미를 표시한다. 어떠한 비유적 의미도 자의적 풀이(literal paraphrase)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비유일반에 해당되는 사실이며 은유의 전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의적 의

7) 수사학적 분류상의 trope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ornament의 한 종류인 figure of speech는 figure of thought와 figure of words로 분류되고 figure of words는 trope와 figure(혹은 scheme)으로 세분된다. trope는 Quintilian의 정의, “the artistic alteration of a word or phrase from its proper meaning to another”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적 의미로부터의 변화”를 수반하나 figure내지 scheme은 단순히 말의 배열형식이 통상적 언어와 다를 뿐, 이러한 의미의 변화를 수반치는 않는다. Peter Dixon, *Rhetoric*, in *The Critical Idiom Series*, ed. John D. Jump (London: Methuen, 1971), pp. 34-38.

미로부터 비유적 의미로 전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인 類比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마디로 類比라고 하여도 어떠한 은유에도 동일한 유비나 平行(parallel)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은유에서는 각각 다른 두개의 사태가 주어지며 그 중 한 사태는 다른 사태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은유에서는 단지 두개의 사물간의 유사성이 제시될 뿐이다. 또한 이러한 양극의 중간에 위치한 은유도 있다. 이것들을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자.

Keats가 그의 어떤 초기시에서⁸⁾

When by my solitary hearth I sit,
And hateful thoughts enwrap my soul in gloom

이라고 썼을 때 둘째 시행은 은유적 표현이다. 여기에는 두개의 사태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 중 한 사태는 누가 혹은 무엇이 어떤 사람을 무엇으로 뒤덮고 있는 그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땅에 걸려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 어떤 이상한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뿔튼 무엇인가 실지의 사물이 그 사람을 뒤덮고 있다. 또 하나의 사태는 어떤 지겨운 생각들이 어떤 사람을 울적하게 만들고 있는 사태이다. 제 2의 사태 전체는 제 1의 사태 전체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두개의 사태간의 유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은유이다. 그런데 어떤 교활한 사람을 “늙은 여우”로 부르는 따위의 은유도 있다. 이러한 은유에서는 두개의 사태간에 전체적으로 유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평행은 단순히 두개의 사물간의 공통점으로 국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예의 중간에 위치한 은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 있다.

An obliging thrush hopped across the lawn; a coil of pinkish rubber twisted in its beak.⁹⁾

여기서 꿈틀거리는 벌레는 “a coil of pinkish rubber twisted”(뒤틀려 꾸불거리는 하나의 분홍색 고무줄)이라는 다른 사태를 통하여 묘사되고 있지만, 그 벌레를 부리로 물고 있는 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은유에서 성립되는 평행관계에는 각 은유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어떠한 은유에도 어느 정도의 평행선은 반드시 있는 법

8) “To hope”

9) Virginia Woolf, *Between the Acts* (N.Y., 194), p. 9.

이다.

II

은유는 자의적 의미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서 언어를 확장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언어의 확장은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바 그 하나는 언어의 폭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어의 깊이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같은 은유라고 할지라도 전자의 경우는 언어 그 자체에 고유한 무의식적 기능이며 후자의 경우는 은유의 문학적 내지 시적인 용도에 관련되는 의식적, 자각적 기능이므로¹⁰⁾ 이 두 기능은 각각 별도로 논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어떤 사물이 나타나 그 명칭이 필요할 때 혹은 이미 있었던 사물이라도 그것이 지니는 성질 내지는 측면을 표현하는 말이 없을 때에는 은유가 사용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는 은유 이외에도 몇가지 방법이 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새로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이미 있는 두개의 말을 합쳐서 복합어를 만드는 방법이다. 복합어의 뜻은 그것을 구성하는 두 말의 뜻을 합한 것이 된다. 영어에서 현미경을 microscope (micro, 微小, 확대하는+scope, 鏡)로 부른 것이나 독일어에서 전화기를 fernsprecher (fern, 먼+sprecher, 話者)라고 부른 것은 이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은유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사용하여 표현한 대상이나 사물을 이전에 본 일이 없고 은유적으로 사용한 그 말의 비유적 의미를 경험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물을 알아보게 만든다는 이점이 있다. 본래 plastron이라는 영어는 갑옷의 강철제 가슴받이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후에는 거북의 腹甲(아래쪽의 딱지)을 이르는 말이 되었는데 이 말이 이처럼 거북에 관하여 처음 사용됐을 때에는 틀림없이 은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plastron의 원래의 뜻, 가슴받이라는 그 자의적 의미만 알고 거북을 직접 보았을 때에는 거북의 plastron이 무엇이라는 것을 곧 인지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가 발명된 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용되었을 때

10) H. Konrad는 이것을 “언어적”은유(linguistic metaphor)와 “미학적”은유(aesthetic metaphor)로 부르고 있다; René Wellek and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N.Y., Harcourt, 1949), p. 196.

자동차 부품을 부르는 명칭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 씌우는 덮개를 부르는 “hood”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처음에 은유로서 사용된 말이었다. 사람 머리에 씌워지는 두건을 부르는 hood라는 말이 엔진에 씌워지는 덮개를 부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재미 있는 사실은 “hood of a car”라고 하면 엔진 덮개뿐만 아니라 차체를 덮는 지붕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다. 실지로 영국인들은 자동차 지붕을 hood라고 부르고 엔진 덮개를 bonnet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hood”라는 은유가 엔진 덮개와 자동차의 지붕을 가리킴으로서 의도하는 사물만을 꼭 집어 내주지는 못하는 흠이 있으나 그런대로 많은 가능성을 배제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유용하다.

이러한 종류의 은유는 빈번히 오래동안 상용됨으로써 점차 은유로서의 색채를 잃어간다. 지금은 누구도 거북의 plastron이나 자동차의 hood가 은유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어떤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¹¹⁾ 우리가 자동차의 hood가 은유였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는 hood라는 말을 듣고 자동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머리에 쓰는 hood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일단 그렇게 발견을 하고나면 그 사물의 모양, 자동차에서의 그 위치, 그리고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은유와는 관계 없이 hood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어떻게 생겼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 후로는 hood의 어떤 의미보다도 이러한 기억과 기대가 더 중요하게 되고 이 말의 은유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만다. 어떠한 표현이 은유가 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相衝 내지는 갈등——가령 hood of a car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두건(hood)이 웬말인가고 이상하게 여기는 상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면 이러한 갈등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hood of a car전체를 하나의 언어단위——우리가 그 모양을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로서 생각하게 된다. 이리하여 은유는 사라지고 새로운 자의적 의미가 탄생한다. 비유적인 언어였던 은유가 그 은유성을 잃고 자의적 언어로 되는 과정은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의 언어현상으로 “In the semantic

11) 그리고 Wittgenstein 이후 의미의 개념은 주로 용법과 결부시켜 생각되고 있다; 哲學事典, 改正新版(東京: 平凡社, 1971).

sphere, the fading of metaphor is almost proverbial”¹²⁾이라는 Ullman의 진술이 가리키듯 이미 흔한 상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은유는 그것을 자의적 의미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논쟁——은유의 완전한 풀이가 가능한가라는——에서는 제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단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나 자의적 의미로 화함으로써 언어의 영역을 확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은유가 있다. 그리스의 철학적 개념들의 발전과정을 Homer시대로부터 단계적으로 추적한 바 있는 Eric Havelock는 Homer시대의 그리스어로는 이러한 철학개념들을 표현할 단어들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은유에 의하여 그것들이 표현되었다고 말한다. Havelock가 암시하는 바에 의하면 가령 “cosmos”라는 말은 본래 여인의 머리 장식이나 마구의 장식과 같이 보기 좋은 종류의 配列을 의미하였는데 후에 그것은 은유적인 확장에 의하여 군대의 정연한 隊伍를, 그리고 같은 류의 은유적인 확장에 의하여 우주 전체의 질서에 적용되는 말이 된 것이다.¹³⁾ 이 경우에도 “cosmos”라는 말은 은유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자의적인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먼저번 예를 설명하는데 사용된 과정이 이 경우에 사용될 수는 없다. 그것은 자동차의 엔진 덮개를 금방 인지하는 식으로 “cosmos”를 인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cosmos”와 같은 말이 자의적인 언어로 되어간 과정을 설명해주는 만족스러운 이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마도 의미론 일반의 발전에 그것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영역을 확장하는 은유의 기능상으로 볼 때에는 “hood”의 경우보다는 “cosmos”의 경우가 더 중요하다. 자동차의 “hood”나 거북의 “plastron” 같은 것에 대하여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直示할 수도 있지만 우주의 질서는 이것 역시 존재하기는 하지만 “hood”나 “plastron”처럼 直示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은유에 의해서 밖에는 우주의 질서를 생각할수 없다. “cosmos”라는 새로운 개념은 은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12) Stephen Ullmann, *The Principles of Semantics*, Glasgow Univ. Publications LXXXIV (Glasgow, 1957), p. 91.

13) Paul Henle가 그의 “Metaphor”라는 논문에서 언급한 사실이다;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ed. Paul Henle (Ann Arbor: the Univ. of Michigan Press, 1958), p. 188 참조.

이처럼 은유는 추상어이든 구상어이든 언어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고 있지는 않다.

Cohen은

Indeed whenever we speak of the mind doing anything, collecting its data, perceiving the external world, and the like, we are using the metaphor of reification, just as we use the metaphor of personification whenever we speak of bodies attracting and repelling each other.¹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은유의 중요한 역할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암시를 주는 진술이다. 이러한 추상어들이나 구상어들이 은유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적어도 그러한 말들이 생겨났을 그 당시에는 은유였음에 틀림이 없다. 수많은 어원학자들이 언어 발달에 있어서의 은유의 역할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아직은 없는 듯하다. 위에서 Cohen은 두 종류의 보편적인 은유를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은유가 있는가? 이러한 은유들을 분류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어떤 일반적인 종류의 은유가 존재하는가? 등 아직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많다. 추상적 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은유가 가지는 중요성도 단순히 추측할 수 있을 뿐으로 보다 정확한 규정을 위해서는 후일의 연구에 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III

언어 그 자체에 고유한 기능으로서의 은유는 새로운 사태에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서 언어의 폭을 증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창조적이다. 그러나 문학적 내지 시적으로 사용된 은유는 다른 의미에서 창조적이다. 그것은 언어 속에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 어떤 사물이나 관념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새롭게 느끼게 만든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다. 이러한 은유는 Cicero가 말한 바와 같이 “관념들을 보다 강력한 빛 속에 던져넣음으로서”(throwing ideas into a stronger light)¹⁵⁾ 언

14) Morris R. Cohen, *A Preface to Logic* (London, 1946), p. 83; quoted in Paul Henle, “Metaphor”(앞註 참조).

15) *Brutus*, trans. G.L. Hendrickson, p. 141; quoted in Peter Dixon, *Rhetoric*, p. 41.

어의 섬세한 표현력과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은유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사용된 사물(vehicle)에게 고유한 느낌을 상징으로 표시되는 사물(tenor)쪽으로 옮겨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느낌의 전이는 Aristotle이 언급한 바 있는 逆은유(inverse metaphor)를 고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Aristotle은 이렇게 말한다.

As old age (D) is to life (C), so is evening (B) to the day (A). one will accordingly describe evening (B) as the old age of *the day*" (D+A)—or by the Empedoclean equivalent; and old age (D) as the "evening" or "sunset of life" (B+C).¹⁶⁾

이와 같이 逆은유를 만들수 있다는 것은 tenor와 vehicle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유사성——다시 말하면 은유의 icon(圖像)적인 성격 때문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모든 은유에 대해서 이러한 역은유가 가능하겠으나 은유와 역은유가 주는 분위기나 느낌은 다르다. Aristotle의 은유와 역은유는 다같이 진부하여 그 清新性을 잃었지만 "the sunset of life"에는 즐겁고 상쾌한 느낌이 수반한다. 그것은 "the sunset" 그 자체가 이러한 즐겁고 상쾌한 사건이며 따라서 이것이 vehicle로 사용됨으로써 그 tenor인 "old age"도 밝은 것으로 느껴진다. 반대로 "the old age of the day"에는 무엇인가 짜늘한 느낌이 감돈다. 물론 늙은이를 대접해주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런지도 모르나 아뭏든 자의적 의미에 수반하는 느낌은 비유적 의미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최소한 이 예는 나타내고 있다.

좀 덜 진부한 예로서 이 점을 밝혀 보기로 하자. *King Lear*에서 Edgar는 이렇게 말한다.

Men must endure

Their going hence, even as their coming hither; Ripeness is all.¹⁷⁾

"Ripeness is all"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서 인생에 관한 어떤 사실을 상징하는 은유이다. "ripeness"의 자의적 의미는 과일 같은 것의 "무르익음"이고 그 비유적 의미는 인간의 정신적 "성숙함"이다. 그러나 Shakespeare는 "ripeness"라는 vehicle을 사용함으로써 이에 수반하는 우리의 느낌——부패 일보전의 난숙함, 자연적 주기의 필연성에

16) *Poetics* trans. Bywater, Chap. 21, 1457b.

17) v. ii, 9-11.

관한 우리의 느낌을 그 tonor인 인생 쪽으로 옮겨놓게 만든다. 이리하여 우리는 ripeness가 동시에 죽음(씩음)에 대한 준비(readiness)임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인생의 주기의 필연성 그리고 “All flesh is grass”¹⁸⁾라는 또 하나의 비유를 연상케하는 무상감과 pathos를 느끼게 한다.

다시 다음 시행들 속에 있는 은유를 고찰해 보자.

Romira stay
And run not thus like a young Roe away
No enemie
Pursues thee (foolish girl) tis onely I
I'll keep off harms
If thou'l be pleased to garrison mine arms;¹⁹⁾

로미라여 멈추라
노루새끼인양 도망치지 말라
어떠한 적도
그대(어리석은 아가씨여)를 쫓지는 않고 오직 내가 쫓을 뿐
나는 危害를 막아주리
그대가 내 팔에 기꺼이 주둔하면

“garrison my arms”라는 표현은 내 팔 속으로 들어와 안기는 Romira와 내 팔과의 관계를, 요새로 진입하여 그곳에 주둔하는 부대와 요새와의 관계에 비유한 은유이다. 이러한 은유는 단순히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식도 암시한다. 즉 부대가 요새에 “주둔”(garrison)하듯 당당하게 내 팔 속으로 진입하여 점령하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또한 다가오는 공격에 대비하는 결연한 태도와 용기마저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은유가 풍기는 뜻은 Romira가 창피스럽게 도망만 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품속으로 들어와 안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Romira : 내팔=부대 : 요새」라는 類比를 포함하고 있는 이 은유를 逆은유로 만들어 부대가 요새에 주둔하는 것을(마치 내 팔이 Romira를 껴안듯) 요새가 부대를 “껴안는다”(embrace)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풍겨나는 뜻은 먼저번 경우와는 다르다. 먼저번 경우 요새는 단순히 주둔하는 부대를 받아들였을 뿐이었으나 이 경우에는 요새가 부대를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뜻이 덧붙혀진다. 이처럼 은유와 逆은유에 있어서 자의적 의미가 지니는 느낌은 비유적 의미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8) Isa, 40. 6.

19) John Hall, “The Call,” 1-6.

“주둔한다”는 은유의 자의적 의미가 지니는 느낌이 품안으로 들어가 안긴다는 그 비유적 의미에 옮겨지고 “겨안는다”라는 逆은유의 자의적 의미가 갖는 느낌이 주둔한다는 그 비유적 의미에 옮겨진다.

이리하여 은유에 있어서의 유사성——vehicle과 tenor간의 유사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상징으로 사용된 사물과 상징이 표시하는 사물간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유사성, 그것들이 은유를 형성하고 각각 vehicle과 tenor가 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이른바 先在的 유사성(antecedent similarity)과 그것들이 은유를 형성하여 각각 vehicle과 tenor가 됨으로서 비로소 생기는, 다시 말하여 은유적인 결합에 의하여 유도되는 이른바 유도적 유사성(induced similarity)이 있다.²⁰⁾ 방금 본 바와 같이 자의적 의미가 지니는 느낌이 비유적 의미로 옮겨짐으로서 생기는 유사성은 이러한 유사성이다. 통상적으로는 Romira가 우리 품안으로 들어오는 일과 부대가 요새로 진입하는 일간에는 어떠한 유사성도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사태는 은유적 결합에 의하여 유사성이 유도됨으로서 Romira가 우리 품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마치 부대가 요새로 진입하는 양 당당하고 떳떳한 일인듯이 느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은유를 사용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기능적인 은유를 사용하는 이외에는 이러한 느낌을 전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선제적 유사성이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은유의 두가지 범주를 설정하는 비평가도 있다.²¹⁾ 선제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epiphor에 있어서는 vehicle은 tenor에 대하여 표현적(representational) 내지는 모방적(imitative/mimetic)인 관계를 가지며 그들간의 연결은 논리적인이다. 그러나 선제적 유사성이 없는 diaphor는 아무런 서술어로도 연결되지 않은 이질적인 경험의 병치(juxtaposition)이다. 따라서 유사성 보다는 대조의 측면이 얼른 눈에 띄이며 두개의 사물이나 사태는 서로 표현적인 관계에 있다가 보다는 단순히 병치에 의하여 제시된(presentational) 관계 밖에는 없으며 그들간의 연결은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20) Paul Henle, p. 191.

21) Philip Wheelwright를 말하는데 그의 epiphor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metaphor이고 그의 diaphor는 Ezra Pound와 T.S. Eliot가 애용한 juxtaposition이다. 이하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의 *Metaphor and Reality*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62), Chap. 4, “Two Ways of Metaphor” 참조.

심리적 정서적으로 이루어진다. diaphor에는 추상음악이나 추상화와 같이 모방적인 요소가 없으며, 두개의 경험은 “시인 자신이 느끼는 어떤 숨은 혹은 잠재적 일치감”(the poet's private sense of some hidden or potential congruence)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diaphor는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보다는 epiphor와 결합될 때 가장 잘 작용한다. 대조가 제시되는 것은 당장의 회화적, 음악적인 차원에 그치고 그 대조를 보다 큰 문맥속에 두고 보는 순간 epiphor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다. 가령 Ezra Pound의 “In a Stration of the Metro”는 주로 diaphor이다.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etals on a wet, black bough

이 한쌍의 이미지들은 얼른 보기에는 단순히 대조만을 제시하듯이 보인다. 이 이미지들의 관계는 표현적이라기 보다는 제시적이다. 또한 어떤 요소들간에 있다고 생각되는 유사성도 선재적이라기 보다는 유도적인 유사성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관념의 연합이 객관적인 유사성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기 보다는 정서적 일치감(emotional congruity)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 couplet는 두드러지게 diaphor적이지만 또한 epiphor적인 느낌도 주고 있다. 외부세계의 색채나 質感에 관한 우리의 시각적인 느낌은 각자에 있어서 다르며 독자에 따라서는 이 대조속에서도 약간의 선재적 유사성이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이 병치는 아주 약하고 미묘하게 비교를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이 두줄의 시편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시들의 문맥속에 넣어 생각하는 경우에는 diaphor적인 요소와 epiphor적인 요소가 확대된다. “화판”(petals)은 이 시편 바로 앞의 3행 시편에서 나오지만 장면은 전혀 다르다. 현대적인 “지하철”속에 있는 군중대신 오렌지 색깔의 장미 꽃잎, 샘 가의 돌에 달라붙어 있는 黄土가 눈에 띄는 옛 중국의 한가로운 생활이 그려져 있다. 보다 더 확대된 문맥 속에서도 주된 인상은 diaphor이지만 이 두가지 인간간의 조건간의 대조를 언급하는 듯한 속삭임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그만큼 epiphor도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은유에는 자의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로 구성되는 주된 인식적 내용(cognitive content)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두

개의 의미에 수반하는 느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들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 의미에 수반하는 느낌은 자의적 의미에 수반하는 느낌에 의하여 굴절 변용되고 사실상 그것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이다. 이처럼 은유가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것——비유적 의미——에 대한 우리의(자의적 의미를 통하여) 굴절 변용된 느낌을 우리는 유도된 내용(induced conten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IV

Kenneth Burke는

Metaphor is a device for seeing something *in terms of* something else.... A metaphor tells us something about one character conside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another character. And to consider A from the point of view of B is, of course, to use B as a *perspective* upon A.²³⁾

라고 말했거니와 B를 A에 대한 “관점”(perspective)——이 자체가 은유적인 용어이다——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위에서 논하였듯이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다른 사물이나 사태에 수반하는 느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John Middleton Murry가 은유를 “the means by which the less familiar is assimilated to the more familiar, the unknown to the known”²⁴⁾라고 정의하였을 때에도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대체로 개념화된 시의 주제는 익숙한 것이나 그것을 느끼는 방식은 설명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老子는 “The reality(tao=道) that can be conceptualized is not the essential reality”²⁵⁾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니와 은유는 개념화되어 구체적인 경험에서 절단된 추상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서 현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듯이 은유는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이기

22) Paul Henle, p. 191.

23) *A Grammar of Motiv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45), pp. 503-04.

24) *Countries of the Mind, Essays in Literary Criticism*, Second Series(Oxford Univ. Press, 1931), p. 2.

25)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道德經); quoted in Philip Wheelright, *Metaphor & Reality*, p. 41. Cf. Yeats의 말 “man can embody truth but he cannot know truth.”

때문에 그것을 풀이(paraphrase)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언어의 발달과정에서 은유는 자의적 언어가 됨으로서 그 자체에 대한 풀이가 된다. 그러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여 미묘하고 착잡하게 보고 느끼는 문제가 개재되는 은유의 문학적 내지 시적인 사용의 경우에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은유가 원래 지니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풀이에 의하여 전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점이 분분한 이 문제에 관하여 Hershberger는 이렇게 말한다.

...that metaphor, the distinctive feature of poetry, is fundamentally an expository, and—in its way, economic prose usage; that in principle, through scientific study of the aesthetic experience, a metaphor is reducible to a multiplicity of integrated prose arguments; that science is admittedly inadequate at the present time, for this analysis; and that pseudo-scientific analysis has discredited such an approach by failing to be conducted by aesthetically sensitive persons.²⁶⁾

그러나 시가 어떤 명제를 주장한다는 견해를 평하면서 Cleanth Brooks는 이렇게 말한다.

Let the reader try to formulate a proposition that will say what the poem “says.” As his proposition approaches adequacy, he will find, not only that it has increased greatly in length, but that it has begun to fill itself up with reservations and qualifications—and most significant of all—the formulator will find that he has himself begun to fall back upon metaphors of his own in his attempt to indicate what the poem “says.” In sum his proposition, as it approaches adequacy ceases to be a proposition.²⁷⁾

이로써 Brooks가 은유는 풀이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Cohen의 견해도 유사하다.²⁸⁾ 우리가 어떤 은유를 다른 말로 “express”하려고 할 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하며 I.A. Richards는

We can put varying sort of limitations on “express”; they give us different kinds of meaning—mere sense, sense and implications, feelings, the speaker’s attitudes to whatever it is, to his audience, the speaker’s confidence, and other things.²⁹⁾

26) “The Structure of Metaphor,” *Kenyon Review*, 5 (1943), 433.

27) *The Well-Wrought Urn* Rev. Ed. (London: Dennis Dobson, 1968), p. 161.

28) *Op. cit.*, p. 84(註 14참조)

29) *Interpretation in Teaching*, p. 135.

라고 말하고 이러한 의미들은 모두 풀이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모두 한번에 풀이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갈파하고 있다.

은유가 지니는 독특한 효과는 그것을 구성하는 말들의 자의적 의미들 상호간에 모순하고 충돌하는데서부터 온다. 이미 인용한 “garrison my arms”에는 분명히 이러한 모순과 충돌에서 유래하는 충격적인 효과가 있다. “garrison”과 “my arms”를 순전히 그 자의적인 의미로만 취하여 Romira와 연결시킬 때 그것들은 분명히 “logical absurdity”³⁰⁾를 구성한다. Romira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garrison”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부대가 아닌 어떠한 개인도 단독으로 “주문”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문한다는 행동은 어떤 요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나 “내 팔”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은유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상충과정을 통하여 Romira가 내 팔에 안길 때의 그 당당함과 떳떳함, 그리고 그 당위성에 관한 느낌을 올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 은유는 “my arms”라는 말의 사용으로 이 말 속에 “dead metaphor”로서 잠재적으로 묻혀있는 은유적인 에너지를 활성화 함으로서 또 하나의 의미의 차원을 만들어 내고 있다. “my arms”는 잠재적으로 “내 병기”를 의미하고 그것은 “내 팔”이란 뜻과 함께 일종의 말장난인 pun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의미의 측면은 이 말이 포함된 시행의 바로 앞 시행의 “I’ll keep off harms”와 연결되어 “내 병기”는 Romira를 위해서 危害를 막아줄 것 같은 암시를 준다. 그러나 실지로는 이 내 팔이자 내 병기인 “my arms”는 Romira의 신체에 대한 정열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I’ll keep off harms”는 하나의 irony를 형성하게 된다. 아리하여 이 은유는 그것이 사용된 직접적인 문맥과 시의 전체적 문맥에 humorous한 분위기와 tone을 나누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의미적인 충만성”(semantic plenitude)³¹⁾은 간결한 격언적인 은유의 표현 속에서 반은 開示되고 반은 은폐되어 있기도 하는데 은유의 효과는 그 자의적인 의미간의 상충이 순간적인 당혹의 과정을 거쳐 잠재적인 의미를 폭발시킬 때 일어나는 충격——극적인 인

30) Monroe C. Beardsley가 그의 은유론을 전개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Aesthetics: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N.Y.: Harcourt, 1958), p. 138 참조.

31) Wheelwright, p. 57.

식과 발견의 충격이기도 한 충격——에 있는 것이다. Ezra Pound는 心象에 관하여

that which presents an intellectual and emotional complex in an instant of time... It is the presentation of such a "complex" instantaneously which gives the sense of sudden liberation... It is better to present one Image in a lifetime than to produce voluminous works.³²⁾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말은 은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바로 은유의 효과는 “지적, 정서적인 복합체”를 “순간적으로” 제시하여 깨달음에서 오는 일종의 “해방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饒舌的인 풀이로서 이 은유의 격언적 효과, 그것이 주는 충격과 해방감은 상실되게 마련이다. 이것들은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은유의 효과이며 우리가 만약 이러한 효과를 은유의 의미의 일부로서 생각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풀이도 은유가 지닌 모든 의미의 차원을 전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Richards의 견해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많은 시적인 은유의 vehicle과 tenor간에는 복합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유사성은 얼마든지 부연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가지 유사성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삼투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유사성은 일련의 암시적 의미(connotations)의 대문을 열어주지만 어떠한 유사성은 암시적 의미의 가능성을 제한하여 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유사성을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한번에 하나의 유사성을 취하여 차례로 그 유사성들을 설명해 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유사성간의 상호작용도 풀이할 수는 있겠으나 그와 같은 상황하고 산만한 설명은 격언적인 간결성과 과도의 集注性(concentration)을 지닌 은유의 효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면 은유가 지닌 인식적 내용과 정서적 내용에 상당하는 자의적 의미를 지닌 말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사실은 이러한 종류의 풀이가 효과상으로도 은유와 동가적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결국 거추장스럽고 장황한 진술이 될뿐더러 여러 유사성간의 상호작용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은유의 풀이는 이처럼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나 매우 어려운 일이

32) *Literary Essays of Ezra Pound*, ed. T.S. Eliot (London, 1954), p. 4.

며 실지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리하여 논리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문제로서는 Brooks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학적인 진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이상적인 풀이를 할 수 있다고 말한 Herschberger의 견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것은 요컨대 과학적인 진술이 인식적인 진실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의미의 비인식적인 정서적 측면을 인식적인 측면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되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언어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은유가 사용되는 경우 당초에 있었던 의미들 상호간의 충돌 내지는 이화감이 사라지면 잠재하고 있던 비유적 의미가 표면으로 나타나 자의적 의미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되었거니와 시적인 은유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리하여 시골 영감을 “old goat”라고 부르고 불쌍한 사람을 “poor fish”라고 부를 때 우리는 “염소”와 “물고기”와 같은 동물에 관한 생각 없이 곧장 시골 영감이나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nip in the bud”라는 본래는 은유였던 이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가 지금 들을 때에는 “꽃봉오리”에 관한 생각의 매개없이 직접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을 생각하고 또한 오늘에는 추상어가 되고 있는 “liquidate”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liquid”(액체)에 관한 생각 없이 “청산하다,” “숙청하다”라는 뜻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은유는 여러가지 경우에 자주 사용됨으로서 그 자의적 의미에는 개의치 않고 확립된 일종의 표준적인 비유적 의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은유를 풀이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간결한 표현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상의 상충과 갈등을 통하여 충격을 산출하는 은유의 효과를 제외한다면 원칙적으로 은유의 완전한 풀이를 가로막을 아무런 장애요인도 없다고 하겠으나 실지로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은유가 관용됨으로써 그 清新性을 잃고 진부한 은유가 되었을 때 그것을 풀이하는 것은 아주 용이한 일이다. 화학적 원소들처럼 은유도 그 발생기에 가장 강한 힘을 갖는 법이다.